



◆ 원효의 오도송(悟道頌)

“어젯밤 잠자리는 움막이라 하여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이라 하니 매우 뒤송송하구나. 마음이 생겨나므로 갖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므로 움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알겠다. 또 온갖 현실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 내고, 모든 현상은 오직 내 인식이 만들어 낸다. 마음 밖에 현상이 없는데 어디에서 따로 구하랴.”

— 찬영, “당신라국의상전” —

무명

거침

(현상세계)생멸문

진전

(진리)진여문

개념 Check

- 부처의 말씀인 경전을 근본 중지로 삼으면서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계율의 실천을 통해 성불을 중시하는 교단을 ()이라고 한다.
- 원효는 일심 사상을 통해 ‘모든쟁론을 화해시키는’ ()을/를 강조하였다.
- 선종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 자신의 본성이 곧 ()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1. 교종

2. 화쟁

3. 불성

(2) 교종

① 교종(敎宗)의 특징

- 교종: 부처의 말씀인 경전을 근본으로 하는 종파
- 해탈에 이르기 위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과 같은 교리의 체득을 강조함
-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계율의 실천을 통한 성불(成佛)을 중시함

② 원효의 사상

- 독창적인 불교 이론의 전개: 어떤 경전을 중시하는가를 따지는 중국과 달리 종합적으로 불교 사상을 이해하고자 함
- 일심(一心) 사상: 일심은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나와 너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불이(絕對不二)한 것. 인간답게 사는 길은 존재의 원천인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임
- 화쟁(和諍) 사상: 당시 대립·갈등하는 여러 불교 종파의 주장들을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려는 사상
- 일심으로 돌아가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할 수 있음
- 왕실 중심의 불교를 민중 불교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함

자료 플러스 원효의 일심(一心)과 화쟁(和諍)

· 일심이란 무엇인가?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성품이 다르지 않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일(一)’이라고 한다. 둘이 없는 곳에서 모든 진리가 가장 참되고 헛되지 않아 스스로 아는 성품이 있으니 ‘심(心)’이라고 한다. 그러나 둘이 없는데 어찌 ‘일’이 있으며, ‘일’이 없는데 무엇을 ‘심’이라고 하는가? 이러한 도리는 언어와 생각을 초월했으나, 무엇이라고 할 수 없어 억지로 일심이라고 한다. — 원효, “대승기신론소” —

· 생겨남(生[생])과 사라짐(滅[멸])은 둘이 아니고, 움직임(動[동])과 고요함(寂[적])은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일러 일심(一心)의 법이라 한다. 비록 그 실상은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수하지는 않고 전체로 연(緣)을 따라 생동(生動)하고, 전체가 연을 따라 적멸(寂滅)한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생이 곧 적멸이요, 적멸이 곧 생이어서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으며 하나가 아니면서 다름이 아니다. — 원효, “금강삼매경론” —

→ p. 61, 7번

원효의 일심 사상은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정신과 통한다. 원효는 어젯밤 잠자리의 ‘해맑고 깨끗한 마음의 측면’과 오늘 밤 잠자리의 ‘물들고 때 묻은 마음의 측면’의 대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 결과 두 마음을 아우르는 ‘근원적인 마음’인 일심을 발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일심은 모든 생각의 갈래들을 묶는 근간이며, 불성의 유무와 같은 다양한 불교 이론에 대한 논쟁을 종합(和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9년 10월: 바른 선 수행을 위해 교학도 연구해야 한다.

(3) 선종

① 선종(禪宗)의 특징

- 선종: 깨달음의 주체인 불성, 즉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고 스스로의 수행을 통한 주체적인 자아의 완성과 해탈을 강조함
-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直指人心(직지인심)],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음[見性成佛(견성성불)]을 강조함
- 경전에 얽매는 것을 비판하면서[不立文字(불립 문자)], 문자 밖에서 깨닫는 것[敎外別傳(교외 별전)]을 중시함
-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으로 주고받는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함[以心傳心(이심전심)]
- 언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을 경계함

② 의천과 지눌의 사상

대표 제시문: 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만 구하려고 하고
 선을 익히는 사람은 바깥의 것을 끊어~

구분	의천	지눌(빈출)
선교의 통합 방식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 추구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 추구
중심 사상	교관겸수(敎觀兼修): 경전을 읽는 교학 수행과 참선을 하는 지관(止觀) 수행을 함께해야 함 내외겸전(內外兼全): 내적인 공부[선종]와 외적인 공부[교종]를 온전히 같이 해야 함	돈오점수(頓悟漸修):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나쁜 습기(習氣)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함 정혜쌍수(定慧雙修):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 선정(禪定)과 지혜(知慧)를 함께 닦아 나가는 것 선교일원(禪敎一元):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며, 교는 부처의 말씀이므로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임
특징	교종과 선종의 갈등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함	한국적인 선(禪) 체계 제시: 깨달음에 이르는 선 수행의 한 부분으로 교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선종과 교종의 공존을 꾀함 교종과 선종의 오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간화선(看話禪)이라는 수행법을 사용하였고,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수행 방법을 정립함

자료 플러스

지눌의 돈오점수(頓悟漸修)

- 깨달은 후에도 오래도록 비추어 보고 살펴야 한다. 망념이 홀연히 일어나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버리고 또 버려라.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데 이르면 바야흐로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선지식들이 깨달은 다음에도 마음을 길들이는 수행(牧牛行[목우행])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눌 카드는 ~목우행**
- 비록 돈오돈수가 최상의 근기라야 들어갈 수 있는 문(門)이라고 하지만, 만약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여러 생을 깨달음에 의지해서 텅어서 점점 익혀 오다가 금생에 이르러서 듣자마자 깨달음이 열려서 한순간에 모두 마친 것이다. 그래서 이 또한 먼저 깨달고 뒤에 닦은 것이다. - 지눌, "수심결" -

지눌은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점수로서의 이 수행은 자신이 본래 깨끗해서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돈오에 의지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수행하면 깨닫게 된다는 말만 믿고, 본성을 직관하려 하지 않고 단지 습관적으로 좌선하려 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다. 그에게 돈오와 점수의 순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4) 한국 불교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① 한국 불교의 특징

- 여러 종파를 통합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조화 정신 지향)
- 민족과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함(호국 불교적 성향)

② 한국 불교의 현대적 의의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건강한 관계 모색을 위한 가르침을 줌
- 사상적 · 종교적 · 지역적 · 계층적 갈등 해결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간화선(看話禪)

선(禪) 수행 방법의 하나로 화두(話頭)를 들고 그것을 활용하여 깨우치려고 하는 것

◆ 습기(習氣)

몸에 배어 있는 나쁜 기운이나 습성 또는 습관

개념 Check

1. 의천은 '경전을 읽는 교학 수행과 참선을 하는 지관 수행을 함께해야 한다.'는 ()을/를 강조하였다.
2. 지눌은 단박에 깨달은 뒤에도 차차 나쁜 습기를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3. 지눌은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을/를 제시하였다.

정답 1. 교관겸수
 2. 돈오점수
 3. 정혜쌍수